

융합 예술 교육과 장애 아동 치료효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ADHD 아동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경*, 이선규**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vergence Art Education and Therapy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ADHD children education-

Eun-Kyung Kim*, Sun-Kyu Lee**

Dept. of Business Graduate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of Business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ADHD 증후군은 대부분 아동에게서 발생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린 시절 내내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별한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현재 음악치료, 심리치료, 국악 감상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음악치료를 통해 주의력 결핍, 대인기피증, 애정결핍, 학습 성적 부진, ADHD 증상을 겪는 아동의 치료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료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교수법을 적용한 치료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실제 치료사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을 통한 융합 예술 교육은 ADHD를 가진 수많은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한 치료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음악 교육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피아노를 바탕으로 하여 융합 예술 교육의 일환인 코다이, 달크로스, 오르프 등 교수법을 통해 ADHD 증후군 아동의 치료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이른바 3대 교수법을 통해 ADHD 아동의 주의력 결핍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외의 대인기피증, 애정결핍등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종류별 아동증후군에 대한 음악 치료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융합 예술 교육, ADHD 증후군, 장애 아동 치료, 음악 치료, 교육 치료

Abstract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ppears most in childhood and show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impulsive activity. If these symptoms are left untreated, they consistently remain as difficulties throughout the childhood and in some cases they will last until adolescence and adulthood. Various researches on music therapy as well as psychological therapy and Korean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have currently been conducted. However, a variety of programs have introduced in the name of treatment but the improvement resul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in reality, have hardly been a specific case. Thus, music educators as well as this researcher should make the efforts to form holistic characters and have interest in countless children with ADHD.

Accordingly, this researcher, who has taught piano lessons, has performed a wide variety of convergence art teaching methods by applying methods of Dalcroze, Kodaly, and Orff to children with ADHD, misanthropy or lack of affection. As a result, symptoms have lessened and been treated for ADHD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On the basis of this experience, there have appeared more educational effects by applying these to other children. This researcher is certain that this study will a foundation of music therapy education for children with each kind of syndrome.

Key Words : convergence art teaching, ADHD syndrome, Therapy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sic Therapy, Educatiaon Therapy

Received 18 November 2015, Revised 28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Sun-kyu, Le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keg0273@kumoh.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직접연주를 통한 감정표현은 연주자 자신의 내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 궁중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악기들이 21세기 인 오늘날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악기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고소득 및 문화생활 확산에 따라 ‘피아노(pianoforte)’라는 악기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소득과 문화생활의 확산에 의해 음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대중적 양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소득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남의 손에 맡겨져 양육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동 수는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불안정 정서를 가진 아동들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6]. 그러므로 불안정 정서의 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그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수행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 정서의 아동들이 당면한 교육현장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음악 교육 분야에서 피아노 교육은 아동의 정서와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대하여 속속 밝히고 있으며, 음악치료학을 비롯한 기타 심리치료, 국악감상치료 등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그러나 애정결핍,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학습부진아, 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전인교육현장, 특히 음악교육현장에서는 그들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료라는 명목 하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 교육방법 등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다이 교수법과 달크로즈의 율리드믹스의 교수법에 대한 검증 통해, 각종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보다 폭넓게 치료음악 교육을 받게 하여 그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음악을 통한 교육효과

2.1.1 음악교육과 인격형성

음악교육이란 예술교육의 일부분으로 음악을 통해 감성과 아름다움을 습득하고 음악적인 해석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음악미의 이해와 감득을 통해 미적 정서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는 인간교육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인격형성이란 말과 행동 등에 나타나는 사람의 품격으로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격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을 통한 인격교육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 음악을 체험시킴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고 정서를 안정적이게 도와준다. 이것은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견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플라톤(Platon)은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훌륭한 도덕적인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음악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 음악교육을 기본교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음악이 도덕적인 함양과 감정의 도야를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고대 철학자들은 음악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근대 철학자 중 한명인 마셀(J. L. Mursell 1893-1963)은 그의 저서 ‘음악교육과 인간형성’에서 “음악 교육은 사회성과 도덕성을 향상 시키며 미적 체험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

20세기 최고의 음악교육학자인 에드윈 고든(Edwin Gordon, 1927~)은 “음악은 인류에게 독자적인 존재이다, 음악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 외부의 삶을 통찰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고[5] 가드너 등 심리학자들은 “9세까지는 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의하여 음악적성의 성장이 되며 그 이후 음악적 성취는 되나 음악적인 능력은 거의 고정되어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

2.1.2 신체적 발달

본능적으로 유아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자연스런 신체활동이 유아의 신체 발달을 도와준다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신체 활동성은 평소 익숙하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소리를 들으며 그에 따라 신체적 움직임을 가지게 되며, 스스로의 감정을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표현하게 된다.

우리 신체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행동은 영유아의 경우 더욱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 딸랑이를 흔들거나 어떤 특정한 소리(오로로 까꿍 등)를 내어 아이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인간은 주변의 환경요소 중 소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방법들을 음악적으로 체계를 갖춘다면 좀 더 큰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7].

랭커는 감정적인 삶의 소리와 유사한 것으로 음악을 꼽았다. 그는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스스로의 감정이나 심리,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러한 이론에 기인하여 우리는 음악을 단순한 교과의 일부분이 아닌 인성 형성에 필요한 전체로도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두뇌로 바로 이어지는 기관은 눈, 코, 입, 귀 등이다. 음악은 귀로 먼저 듣고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 이내 따라 하기 위해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은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매우 유익한 수단임을 확신할 수 있다.

2.3 음악 교육가들의 교수법

본 연구에서는 졸탄 코다이[7,10], 에밀 자크 달크로즈[5,8], 칼 오르프[12]의 교수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세 가지의 교수법은 논자가 교육현장(헝가리, 스위스, 독일)에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받은 내용을 학원교육현장에서 시행해본 교수법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3.1 졸탄 코다이

졸탄 코다이는 케치케메트 태생인 헝가리 작곡가이며, 국부로 인정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로 추앙 되고 있는 음악 교육자이다. 그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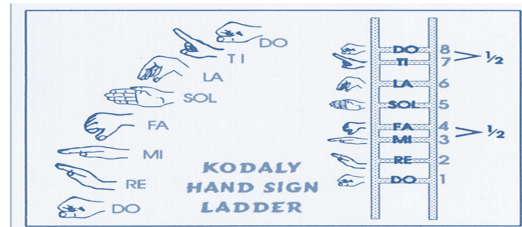
창안하였고, 특히 손 기호를 통한 노래 부르기 중심의 합창교육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손 기호 방법은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주의 산만, 집중력저하인 아동들에게 큰 효과가 있는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언어 습득이 어머니의 말 모국어 배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머니가 부르는 민요를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코다이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이다. 둘째, 음악교육은 어릴 때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내청훈련 즉 음을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배운다. 넷째, 미족음악의 문화유산인 민요, 예술가 곡을 주제로 한다[6].

이러한 이론을 기본으로 한 코다이 음악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의 높낮이를 손 모양으로 시각화한 손 기호법의 창안한다. 둘째, 이동도(Do)법에 의한 계명창 습득한다. 셋째, 5음 음계의 계열화를 통한 체계적인 선율을 익힌다. 넷째, 다 성부 합창과 다 성부 카논을 위한 통합 화성 교육을 실시한다.

코다이의 음악교육방법을 세분하여 ① 코다이 손 기호, ② 코다이 교수법의 음가음절지도(Duration Syllables), ③ 이동도법 게이름 부르기(Tonic sol-fa), ④ 손기호의 제원, ⑤ 코다이 리듬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코다이 손 기호

손 기호는 ‘C~C’를 사람의 배꼽으로부터 눈 밑까지 기준으로 삼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코다이의 손 기호법은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Fig. 1] Kodaly's Hand's Sign

나) 코다이 교수법의 음가음절 지도(Duration Syllables) 리듬을 음절(말)로 소리 내게 하여 리듬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박 또는 박자와의 관련 속에서 약속된 음절로

리듬을 읽게 한다. 코다이는 그림악보를 통해 리듬을 읽도록 했는데, 크기가 다른 그림이나 음표의 기둥과 꼬리만 있는 그림을 이용했다. 아래는 코다이의 리듬표이다.

<Table 1> Kodaly's Syllable

Note	Syllable
	ta
	ti
	too
	toe
	tay
	ti-ri-ti-ri
	tri-o-la
	syn-co-pa (ti-ta-ti)

[Fig. 2] Kodaly's Rhythm Table

라) 이동도법 계이름 부르기(Tonic sol-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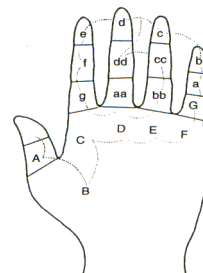
Tonic sol-fa는 이동도법을 사용하는 계명 창을 통한 독보, 기보능력 향상과 이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 방법이다. 이동도법의 이름은 11세기 수도승인 구이도 다레초(Guido d'Arezzo)가 수도원 성무일과 중 '만가' VersPers를 위해 작곡한 곡의 라틴어 가사악구의 첫 음으로 제시되었다. 아래의 악보는 구이도 다레초가 로마에 초청되어 수도사와 소년성가대를 지도하는 동안 그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음계 창을 만들 수 있었던 요하네스 찬가(Sancte Johannes)이다.

[Fig. 3] Johannes Anthem

[Fig. 3]의 요하네스 찬가의 Ut는 17세기에 Do로 바뀌었고 Si는 17세기 말에야 음계의 7번째 음으로 등장한다. 그 후 약간의 변천과정을 거친 후 현재에 모습을 갖춘 이동도법에 의한 계이름 부르는 일정한 법칙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계이름을 채택하여 부르는 영어권이나 독일어권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영어권의 발음 습관을 통해 노래 부르기에 편리하게 정착된 것을 채택한 것이다.











Do Di Re Ri Mi Fa Fi So Si La Li Ti Do Do Ti Ta La Lo
So Se Fa Mi Ma Re Ro Do
- Do Di Re Ri Mi Fa Fi So Si La Li Ti Do'
b - Do' Ti Ta La Lo So Se Fa Mi Ma Re Ro Do

[Fig. 4] Kodaly's Sol-fa



[Fig. 5] Guidonian hand

〈Table 3〉 Dimensions of the hand symbol

	do		so
	re		si
	mi		la
	fa		ta
	f		ti

손 기호를 이용한 교육법은 아동들의 시각적인 음정 감 개발 및 손의 위치나 모양으로 음의 고저나 선율의 윤곽,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적 손 기호 교수법은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악보 읽기를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효과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에밀 자크 달크로즈

달크로즈는 음악, 무용,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음악가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음악적인 리듬을 타고난다. 그러므로 음악공부를 위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악기는 사람의 몸이다.”고 하였다[8].

달크로즈가 유리드믹스를 지도할 때에는 음악 전공자(대학생)에게 예술적 표현성과 감각을 일깨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음악이라는 도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함이었다.

유리드믹스는 현재 음악교육 이외에도 음악치료, 체육,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교육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별 가장 수업, 둘째, ‘우드 블럭’을 이용한 리듬수업, 셋째, 손뼉 치기와 유희수업, 넷째, 타악기를 이용한 리듬수업 등이 그것이다.

2.3.3 칼 오르프의 음악 학습이론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이라는 오르프는 무용 및

체조를 통한 음악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놀이와 대화, 신체동작, 노래, 악기연주 등이 조화로운, 즉 총체적인 체험학습으로 음악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즉흥연주 및 표현을 강조하였고, 둘째로는 말하기와 노래 부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셋째는, 경험의 하나로서 시(詩)를 학습하고, 넷째는 어린이들이 음악, 시를 읽고 느껴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신체로 표현하는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오르프의 즉흥연주와 창작(표현) 교육은 학습자의 예술적인 잠재력을 일깨우고 실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을 유아들 이상 초등부 학생들에게 시행하여 음악성을 발달시킨다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1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알려진 교육과정은 신체, 언어, 노래, 악기 오스티나토(ostinato) 등의 다양한 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3. 교육의 실제

교육의 실제에서는 코다이 교수법과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의 교수법을 직접 시행한 과정과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을 제시하고, 저자가 교육을 통해 ADHD 증후군을 겪고 있던 아동의 치료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교육실행과 그 결과

다양한 피아노 교수법 중, 이중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등 일명 ‘3대 교수법’이라는 유명한 교육법을 체험하면서 이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수많은 아동들을 지도해왔다. 특히 교육학자들의 교육법을 이용한 피아노 교습을 통해 집중력이 부족한 ADHD 증후군, 대인기피증, 애정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을 지도하여 증세의 완화 및 치료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많은 아동들에게도 적용하여 지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었다.

코다이의 손 기호법을 이용한 교수법은 아동들에게 적용 교육한 바, 아동들의 청음 능력 향상 및 내청에 의한 음악성이 보다 빠르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솔·미 제이션 교수법의 시행은 고도의 집중력과 아동집단의 결속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교수법에 아동들의 흥미유발을 위한 방편으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접목한 수업을 시행하였다. 아동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흥미 유발이 가장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배우는 클래식수업」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고안 된 음악이론을 노래로 변형한 논자만의 교수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초견으로 리듬을 읽는 능력이 많이 향상 되었고, 피아노 실기에서도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당김 음 등 다양한 리듬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ADHD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동과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아동, 학습부진아 등의 아동들에게서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2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현재 자녀들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자녀분은 몇 명이십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4		0	0%
3		10	10%
2		65	65%
1		25	25%

응답자 65%가 2명의 자녀를, 25%가 1명의 자녀를, 10%가 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피아노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님 중에 피아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Parents		20	20%
Mother		50	50%
Father		5	5%
NO Experience		25	25%

응답자의 50%가 어머니만 피아노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부모 모두 교육받은 경우는 20%이고, 25%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는 가정이 75%로 나타났다.

3) 음악으로 태교를 하였다면 장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Classical piano music		25	25%
Concerto classical music		40	40%
Korean Classic music		20	20%
New Age & Pop		10	10%
Not a prenatal music		5	5%

응답자의 65%가 클래식음악, 20%가 한국음악으로, 태교를 위해 특별한 음악 감상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였다.

4) 태교를 음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For fetal brain development		87	87%
For the mother's mental stability		5	5%
For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fetus		8	8%

응답자의 87%가 태아의 명석한 두뇌발달을 위해 음악을 태교의 하나로 감상, 또는 연주하였다고 답하였으며, 8%의 응답자가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음악관련 태교를 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산모들의 태교 목적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녀의 출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녀의 피아노 교육 시작 시기는 언제 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4 - 5		10	10%
8 - 7		45	45%
8 - 9		40	40%
10 - 11		5	5%

피아노교육의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6~9세 때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8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이들의 두뇌발달과 인격형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잘 받아드릴 수 있는 지의 유무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의 응답자가 10~11세 때, 10%의 응답자가 4~5세 때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6) 피아노 교육은 누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Parents wanted		50	50%
Children voluntarily		30	30%
The advice of other parents		0	0%
Because popular piano education		15	15%
For the affect stability		5	5%

위의 표를 보면 피아노교육의 50%는 부모들의 의견으로, 30%는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5%는 피아노의 대중화 바람으로 시작, 5%가 정서적인 부분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자 중 5%의 자녀가 정서적안정이 필요하여 피아노교육 선택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7) 피아노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Want to know about the joy of music.		40	40%
Wants to be helpful to relieve stress.		5	5%
Be grown up, I want to be able to play one music.		25	25%
Want to be a pianist.		0	0%
Want to be a stable atmosphere is formed.		30	30%

40%의 응답자는 음악의 즐거움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고, 응답자의 30%가 피아노교육을 통해 안정된 정서기 형성되기를 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한곡 정도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25%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녀들이 음악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다.

8) 피아노를 배운 후 자녀의 성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This personality lit up.		25	25%
It was emotionally stable.		40	40%
The year was rich in emotions.		20	20%
Not changed.		10	10%
Etc		5	5%

응답자 중 40%가 피아노를 배운 후 “정서적으로 안정 되었다.”고 답했다. 한 편 25%는 “성격이 밝아졌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가 표현의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응답하였다.

9) 피아노를 배운 후 집에서 달라진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It should always practice the piano at home.		25	25%
Always humming with oneself.		30	30%
It began not interested in piano.		0	0%
There are times when parents give a play to tell sometimes.		30	27%
Not changed.		20	18%

응답자 중 30%가 입으로 항상 흥얼거린다고 답하였으며, 52%의 응답자가 집에서 연습 및 연주를 자주 한다고 답하였다.

10) 피아노를 배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5	5%
Share a lot of talk about the piano and music.		45	45%
Because too much atten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not good.		0	0%
		40	40%
Etc		10	10%

응답자의 50%가 피아노교육 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및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40%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11) 피아노를 배운 후 교우관계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Between the child and friends was right.		20	20%
Between the child and friends was worse.		0	0%
Not changed.		80	80%

응답자의 20%가 자녀들에게 피아노교육을 시행 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12)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연주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Often		20	20%
Once		60	60%
Do not play		15	15%
Don's have piano		5	5%

응답자의 80%가 즐겁고 기쁠 때,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가 생겼을 때 음악을 통해 자신 표현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고 있다는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13) 피아노를 배운 후 음악관련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Sometimes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on the CD.		60	60%
Listen to pop music.		15	15%
Learn other instruments.		15	15%
Find music cremation frequently listen to music.		6	6%
Listen to classical music over the broadcast media.		4	4%

응답자의 70%가 피아노교육 시행 후 적극적인 클래식 음악 감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5%는 가요를 주로 듣는다고 답하였으며, 15%의 응답자는 다른 악기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4) 피아노교육을 통해서 집중력이 높아졌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Highly increased.		25	25%
A little higher.		45	45%
Not changed.		30	30%
Became distracted.		0	0%

응답자의 70%가 피아노교육 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0%가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피아노교육 후 산만해졌다는 응답자는 0%로 나타났다.

15) 피아노를 배운 후 인성교육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The personnel well.		10	10%
The amenities were good.		10	10%
Was calmed.		20	20%
Was aggressived		0	0%
Not changed.		60	60%

피아노를 배운 후 인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60%가 대답하고 있다. 20%가 많이 차분해 졌다고 응답하고 각 10%가 인사성과 예절이 밝아졌다고 응답했다.

특이할 부분은 ‘예전보다 성격이 과격해졌다’에 대한 응답은 0%로 나타났다.

16)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Question	Subject	N	Percentage
For the pleasant life		55	55%
For a good family atmosphere		5	5%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30	30%
In order to solve the stress		10	10%

응답자의 55%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30%가 전인적 인성형성과 안정적인 정서의 발달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10%의 응답자가 자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3.3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조사 시행의 결과 응답자의 95%가 음악으로 태교를 하였다고 했으며, 87%의 응답자가 태교목적이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라 답하였다. 그러나 85%의 응답자가 자녀의 피아노교육을 6~9세 때부터 시켰다고 답하였다. 이는 태교시의 음악은 태아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는 음악교육을 5%의 응답자가 10~11세 때, 10%의 응답자가 4~5세 때부터 시켰다고 답하였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는 응답자의 40%가 음악의 즐거움에 대하여 알기 원했고, 30%가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한곡 정도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25%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녀들이 음악을 통해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아노교육을 시작한 동기는 50%가 부모들의 의견에 의해서였고, 30%가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시작한 것이라 답하였다. 15%는 피아노의 대중화 바람으로 시작했고 5%가 정서적인 부분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 문항이 시사하는 것은 응답자 중 5%의 자녀가 정서적안정이 필요하여 피아노교육을 선택,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부

모들의 의지에 의해서 음악교육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피아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서 75%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부모들의 음악교육 유경험이 자녀의 음악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교육을 시행 한 후 45%의 응답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답하였으며, 25%는 “성격이 밝아졌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가 표현의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응답하였다.

피아노교육 시행 후 응답자의 50%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및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답하였으며, 20%의 응답자는 친구들과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답했다. 그리고 80%의 응답자는 자녀들이 즐겁고 기쁠 때,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가 생겼을 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피아노교육 시행 후 응답자의 70%가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인성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가 많이 차분해 졌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음악교육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자의 55%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답하였으며, 30%가 전인적 인격형성과 안정적인 정서의 발달을 위해서라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10%가 자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피아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 조사 시행을 통해 피아노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인성의 긍정적 변화 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4. ADHD 증후군 아동의 치료 사례 분석

4.1 ADHD증후군의 원인

ADHD 증후군(주의결핍/과잉행동장애)은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인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과 충동적 행동 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집중력을 조절하는 부위의 뇌 활동이 떨어지면서 세부적 사항에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등)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ADHD증후군의 과잉행동 증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손발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 앉아 있도록 요구 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 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조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즐지 못한다.
-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 충동적 행동 증상 나타난다.
-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음식을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집어 먹거나 흘리는 게 많고, 과자를 먹을 때도 요란스럽게 먹고, 음료는 반 이상을 흘린다.

이러한 장애의 치료 방법에는 현재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으며 행동치료를 음악활동도 포함 되어있다. 약물치료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증상 억제에 불과할 뿐 진정한 치료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음악치료는 개인감정을 표출·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ADHD의 음악 치료의 사례에 대한 논문 중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7편뿐이고, 석사 학위 논문을 축약하거나 재수정 하여 발표한 학위논문이 대부분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연령은 유아와 초등학생

이 대부분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아가 여아 보다 3배 정도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임상 분야로서 학회들의 적극적 수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ADHD 아동을 위한 임상기술 및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4.2 치료사례

오늘날 부모들의 교육방식은 1990년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보화 된 시스템을 중시하며,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많은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와 수학, 예술분야의 기초를 익히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5세의 아동에게 시행하는 피아노교육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 및 정서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ADHD증후군,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 즉, 사회성이 결여된 아동에게서 피아노 교습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알려진 바로는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A10'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고, '의욕중추'라고도 불리는 측좌핵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은 음악이 아이의 인격형성과 행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는 본 논자의 경험 사례이다.

4.2.1 사례 1

1996년 ADHD증후군을 겪고 있는 A군(당시 9세)을 만나게 되었다. A군에게는 유치원생인 여동생이 있었고, 부모는 맞벌이 부부였다. 어머니는 학원에서 교육상담하는 동안 A군을 받아주지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다른 피아노학원 6군데에서 환불을 해주며 A군 교육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미 음악교육으로 다양한 아이들의 성격개선을 유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기로 마음먹었다. A군의 테스트 결과 전형적인 ADHD 증후군증상이었다.

A군은 학교에서 소문난 악동으로 가정교육이나 예절, 사회성 등이 많이 부족했으며, 다른 아동들을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복도

에서 벌을 받는 시간이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많았고, 담임에게는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늘 뺨을 맞았으며, 교우 관계도 원활하지 않았다. A군은 목소리가 큰 편이었으며, 피성을 자주 질러댔다. 음악교육은 2년 학습했다고는 하나 게이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증상을 지켜본 결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재가 가져온 애정 결핍의 하나로 보고, 심리치료를 우선으로 한 교육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치료의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의 클래식 감상 수업, 리듬수업, 노래를 주제로 한 피아노 교육, 타악기 수업, 빔 프로젝트를 통한 영상교육 등을 통해 내제적인 경험과 외적경험의 중간으로 연결하는 역할로서 피아노를 접목시켜 통합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논자 교육방법의 첫 번째는, 주1회 유리드믹스 수업과 우드 블럭(Wood block)리듬수업을 함께 병행하여 아동의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이끌어 낸 후 피아노교육으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간단한 영어 노래를 활용한 가창수업으로 감성을 깨우는 교육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주1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고전시대와 낭만시대의 작곡가들 생애 및 작품을 영상으로 보고 듣는 감상 수업을 실행하였다. 이 때 A군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상당한 집중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는, 코다이의 교수법을 이용하여 피아노 악보를 읽으면서 가창 할 수 있도록 초견으로 악보 보는 법, 악보 읽기, 게이름 반복 수업 등을 1일 1시간씩 주5회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가창수업을 반복 할수록 발음의 교정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또한 악보를 보는 초견 능력 향상과 모든 박자, 리듬 등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하였다.

네 번째, 피아노교육을 함에 있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연습을 할 때에도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아노 방안에 낙서하는 습관과 의자를 던지거나 아이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아노 연습 시간을 점차 늘려보았더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A군을 처음 만났을 때는 피아노연주를 5분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음악치료를 꾸준히 시도한 결과 45분-50분간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우 관계 역시 친화력이 생기는 등 현저한 변화를 나타냈다.

피아노의 직접적인 교육은 1년 동안 알프레드(미국 피아노 교재와 마이엘 두 권으로 시행했으며, 2년째에는 체르니의 교재를 이용한 교육을 시행하였는바, 이때부터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피아노 연주를 많이 할수록 난폭했던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자를 집어던지고 친구들과는 늘 싸움만 하던 그는 클래식을 통해 정서, 심리까지 치유하게 된 것이다. A군이 당시 받고 있었던 수업은 학교수업이 전부였고, 심리치료 또한 받지 않고 있었다. A군의 방과 외 수업과 심리치료는 본 논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전부였었다.

그러나 A군은 정서·인성·품행·인사성 등의 변화와 함께 학교생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교내의 소문난 악동이 선형 상을 받는 모범학생이 된 것이다. A군을 통해 본 논자는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4.2.2 사례 2

B양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5분 이하의 집중력, 1교시 중 물 마시기 3회 이상, 화장실 출입을 2번 이상 다니며, 타 학생의 연주방해, 낙서, 끊임없는 질문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B양 역시 A군에게 시행했던 교육방법을 시도한 결과 2주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B군부모와 상담을 병행하여 교육을 시도한 결과 1개월 후 인사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피아노 소리에 집중하며 짧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에는 뛰어나거나 수다스럽게 말하지 않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B양의 경우는 부모와 협력하여 빠른 변화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ADHD증후군 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애정결핍이 있다는 것이며, 치료방법으로는 흥미유발을 통한 피아노교육과 함께 꾸준한 애정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다.

5.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ADHD증후군은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인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과 충동

적 행동 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집중력을 조절하는 부위의 뇌 활성이 떨어지면서 세부적 사항에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 하지 않고,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 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애의 치료 방법에는 현재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으며 행동치료에 음악활동도 포함 되어있다. 약물치료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증상 억제에 불과할 뿐 진정한 치료라 할 수 없다. 음악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감정을 표출·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원현장에서 피아노교육을 하고 있는 본 논자는 ADHD 증후군, 대인기피증, 애정결핍 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등의 교육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음악치료교육을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집중력이 부족한 ADHD 증후군을 보이는 아동들의 증세 완화 및 치료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많은 아동들에게도 적용하여 지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논자는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동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동 스스로의 행위(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 1,2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아동의 치료사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군과 B양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는 집중력이 5분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1교시 중 물 마시기 3회 이상, 화장실 출입 2번 이상, 타 학생의 연주방해, 낙서, 끊임없는 질문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집중력이 5분도 되지 않던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피아노교육을 시행한 결과 2주후부터 조금씩 변화

가 보이기 시작 했다.

1개월 후에는 인사성의 변화 및 수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2개월 후에는 피아노 소리에 집중하며, 짧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뛰어나거나 수다스럽게 말하지 않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피아노교육 시행 2년 후 의자를 집어던지고 싸움만 하던 이 아이들의 교우관계에 친화력이 생기는 등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A군은 학교에서 선행 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5분도 못되던 집중력이 향상되어 40~50분 연주도 거뜰히 해 내는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의 결과.

- 응답자의 95%가 음악으로 태교를 하였다고 했으며, 87%의 응답자가 태교목적이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라 답하였다.
- 피아노교육을 통해 40%가 음악의 즐거움에 대하여 알기 원했고, 30%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 피아노교육을 시행 한 후의 변화에 대하여는 45%의 응답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였으며, 25%는 “성격이 밝아졌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가 표현의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응답하였다.
- 피아노교육 시행 후 응답자의 50%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및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답하였으며, 20%의 응답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답했다.
- 80%의 응답자는 자녀들이 즐겁고 기쁠 때,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가 생겼을 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답하였다.
- 피아노교육 시행 후 응답자의 70%가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인성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가 많이 차분해 졌다고 답하였다.
- 음악교육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자의 55%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답하였으며, 30%가 전인적 인격형성과 안정적인 정서의 발달을 위해서라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10%의 응답자가 자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 조사 시행을 통해 피아노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인성의 궁

정적 변화 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위의 사실들을 통해서 ADHD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동의 치료에 음악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DHD증후군의 음악 치료의 사례에 대한 논문 중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7편뿐 이고, 석사 학위 논문을 축약하거나 재수정 하여 발표한 학위논문이 대부분으로 조사 되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음악치료학을 비롯한 기타 심리치료, 국악감상치료 등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애정결핍,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학습부진아, ADHD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전인교육현장, 특히 음악교육현장에서는 그들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료라는 명목 하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활용, 교육방법 등을 통한 개선 결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자를 비롯한 음악교육자들은 ADHD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아동들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논자의 음악치료연구는 미약하지만 각종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음악치료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Darrow, A. A. “Research on mainstreaming in music education”.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9, No. 1, 35-37. 1990.
- [2] Daveson, B.& Edwards,J. “A role for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Vol. 45 No. 4, pp. 449-457. .1998
- [3] Gfeller, K. E.(2000).“ Accommodating Children Who use Cochlear Implantsin Music Therapy or Educational Setting”s. Music therapy perspectives,

Vol.18 No. 2, pp.122-130.

- [4] Patterson, Allyson. "Music teachers and music therapists: Helping children together." Music Educators Journal, Vol. 89 No. 4, pp. 35-38. 2003.
- [5] Roabalts, J. Z. "The healing function of improvised songs in music therapy with a child survivor of early trauma and sexual abuse.", In S. Hadley(Ed.). Psychodynamic music therapy : Case studies. pp.142-182. 2003
- [6] Shuler, S. C., "Music, at-risk students, and the missing piece.", Music Educators journal, Vol.78 No. 3, pp. 21-29. 1991.
- [7] Graham, J., & Fraser, B. "Does the Acoustic Environment Make a Difference to Children with Multi-Sensory Impairments?.",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9, No. 3, pp. 112-15. 1992.
- [8] Schleichkorn, J. "Coping and cerebral palsy : Answers to questions parents opten ask (2nd ed.). Austin, Texas : PRO · ED, Inc. Spearking. 1993
- [9] Stone, M. L. "Kodály and or ff music teaching techniques : history and present practice". ph. D.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1971
- [10] Thaut, M. H. "Music therapy in neurological rehabilitation. In W.B. Davis, K. E. Gfeller, & M. H. Thaut(2nd eds.)",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 Theory and practice(pp.221-247). New York. McGraw-Hill College. 1999
- [11] Choksy, L. "The Koddly Method". 1974
- [12] ErzsébetSzönyi. "Kodály's principles in practice". 1977.
- [13] Gordon, E. E. "Guiding your child's musical development. Chicago : GIA. Publication, INC. 1991
- [14] Gordon, E .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K-Grade3) and the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Grade1-Grade6)". Chicago : GIA Publication, INC. 1986.
- [15] Sadie, 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Chicago : GIA Publication, INC. 1980

김 은 경(Kim, Eun kyeong)



- 1993년 3월 : 영남 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졸업
- 2014년 3월 : 영남 대학교 교육대학 원 음악 교육 (석사) 졸업
- 2014년 7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전략경영, 문화 예술경영, 기술 리더십

· E-Mail : kek2353@hanmail.net

이 선 규(Lee, Sun Kyu)



- 1983년 2월 : 성균관대학교(석사)
- 199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미국 Univ. of Michigan 객원교수
- 2003년 3월 : 미국 Editorial Board of HFEM(SSCI)
- 1990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경영전략, 조직/인사, R&D생산성

· E-Mail : sklee@kumoh.ac.kr